



강기정 “통큰 결단 기대”...김영록 “적극적 지원책 갖고 와야”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 간 3차 회동이 7월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강 시장과 김 지사가 2일 통합 이전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묘한 ‘기싸움’을 벌였다.

강 시장이 ‘통큰 결단’을 강조한 반면, 김 지사는 ‘광주시에 지원책과 무안군의 전향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다소 결이 다른 접근 방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산 군수가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이뤄질 3차 회동이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상호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땀탕’으로 마무리될지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곧 열릴 3차 회담에서 세 사람(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김산 군수)이 호반 발전을 위한 통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결단이 (무안)군민과의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1일 대구 군위군을 찾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현황을 둘러본 소회도 밝혔다.

그는 “TK 신공항 추진 과정을 들으며 크게 부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

전 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항 건설로 지역의 관문을 여는 일을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는 모습,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합심해 추진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기다리는 공항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를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 간 3차 회동이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무안국제공항(왼쪽)과 광주공항.

TK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갈등을 극복한 이유에 대해 강 시장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4명의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결단하고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시·도지사, 공항 문제 3차 회동 앞두고 미묘한 기싸움
김지사 “무안군도 무조건 반대 말고 전향적인 자세 필요”

김산군수, ‘이전 반대’ 고수...회동결과지역민 이목집중

무엇보다 강 시장은 “무안 통합공항도 올해 안에 확정만 되면 TK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우리는 이미 공항을 위한 무안-광주 고속도로를 갖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역시 2조7천억 원을 들여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가

무안 통합 공항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김영록 지사는 광주시의 ‘새로운 카드’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 마무리 발언

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공항 문제를 놓고 조만간 3차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광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협상 테이블에 갖고 나와야 한다”고 광주시의 역할론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해소돼야 하지만 소음 피해 문제로만 만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무안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지원책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 규모나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군공항 특별법도 이전 대상지, 즉 무안군에 대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아니고 이전하고 남은 (광주) 군공항 (부지)을 어떻게 개발할 때 특례를 줄 것이냐에 치중돼 있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든지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특례도 특별법 개정으로 반영돼야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군공항이 오게 되면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10배, 20배 상쇄하고도 남는 지원 대책과 발전 효과, 지역 경제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예비후보지 지경에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무안군도 3차 회동에 대해 이제는 무조건적 반대야 아니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3차 회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고 이런 변화가 제대로 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 김 군수의 3차 회동 일정은 현재 비공개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7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전남도의 입장이 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62.8% 득표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진·진중호 선출
‘한동훈號’ 최대 난제는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 전망

국민의힘 새 대표로 김사 출신의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넘는 62.8%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4면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중호 후보가 선출됐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장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7개월간 이어져 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정식 지도부를 갖추게 된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집권 여당의 전열을 갖추면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여권의 일반적 인식이다. 야권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대표까지 싸잡아 ‘특검 파상 공세’를 퍼붓는 상황을 돌파하고, 최악의 진흙탕 싸움을 벌인 이번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

도 한동훈 체제 앞에 놓인 난제들이다. 한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남게 남았고 자신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따로가는 여당을 택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지지율이 당 지지를 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당원들이 선정한 한 대표를 과거 이준석·김기현 전 대표처럼 완력으로 밀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런 점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과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한 대표가 현재 권력과의 미묘한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

을 위해 충돌보다는 전략적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전략적 상생이 성공할지는 당장 국회 재표결을 앞둔 ‘제3차 추경특검법’이 첫 가능성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차 추경 방식의 특검’에 대통령실과 당 원내지도부가 부정적 입장인 가운데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양측 관계 설정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oday	
무안-라오스 정기노선 뜬다	3면
‘민생배살리기’ 나신 지역의원들	4면
시민 알권리 외면하는 남구의회	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